

# “오직 정권창출 위해 남은 정치인생 불태우겠다”

## 새정치 전대 호남주자 동행취재 - 박지원 당대표 후보

새정치민주연합의 2·8 전당대회 지도부 경선 레이스가 종반전에 진입한 가운데 막판 경쟁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당권 및 최고위원 판세가 확인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어 각 후보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남이 지역구인 박지원 후보와 주승용 후보는 각기 당권과 1위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막판 레이스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일보를 이들 동안의 동행 취재를 통해 집약된 키워드로 박지원, 주승용 후보가 던지는 메시지와 각오 등을 조명했다.

### 밤 10시까지 ‘표밭’ 누비는 타고난 강력체력 당심 지지 큰 힘... “승기 잡았다” 판단 경험·경륜 바탕으로 강력한 혁신 추진 자신

◇일정=박지원 후보의 일정은 체력의 한계를 실감할 정도로 빡빡했다. 28일 하루에만 당원들과의 간담회 등 13곳의 방문 일정과 6개 언론과의 인터뷰가 이어졌다. 지난 7년 동안 금요일(금요일 지역구 귀향, 월요일 국회 상경)로 다져진 체력을 바탕으로 당권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지역을 순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의 일정은 밤 10시 이후에 끝나지만 캠프에 들려 TV 토론 등 경선 전략을 논의한 뒤, 자정을 넘어서야 귀가한다. 귀가해서도 트위터에 하루의 소회를 담은 글을 올린다. 차량 이동 등 자투리 시간에는 전화를 통해 지지를 호소한다. 잠시의 휴식시간도 없다. 박 후보는 하루에 휴대폰 배터리 3개를 교체한다는 것이 수행원의 전언이다.

◇판세=박 후보는 전반적 판세에 대해 당심의 지지를 바탕으로 승기를 잡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전체 선거인단의 85%를 차지하는 당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문재인 대세론의 허상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구체적 여론조사 결과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당원들과의 간담회 등 현장에서 박 후보에 대한 연호와 박수가 이어지는 등 분위기가 뜨거웠다.

◇민심=대권 주자를 지낸 문 후보가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다는 것은 인정했다. 하지만 인지도의 허상이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총선과 대선이 얼마남지 않았다. 정권창출을 위해 누가 더 적합한지 냉철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했다.당의 통합을 이끌기 위해서는 계파에서 자유로운 후보가 선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혁신적 이미지가 약하다는 지적에 박 후보는 정당 및 공천 혁신 분야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10대 혁신공약’을 발표했고 타 후보들이 뒤 따라 유사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의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려면 경험과 경륜, 그리고 계파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결론은 ‘박지원’이라는 입장이다.

◇지역구도=타 후보들이 자신을 지역구도의 틀에 묶어두려 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국우 보수 세력과 같은 발상이며 시대의 위기마다 헌신해 왔던 호남 민심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분개하기도 했다. 당의 대표가 되려는 후보들이 보편적 가치와 수권정당 건설의 구체적 비전, 통합의 리더십을 제시하지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후보로 나선 박지원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 웨딩홀에서 열린 서울시장 당대표·최고위원 및 서울시장위장 후보 합동간담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네거티브=실제 사실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네거티브라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계파 독점구도 타파와 당권-대권 분리는 정권창출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것이다. 부산에서는 부산 정권, 영남 대표를 주장하다가, 호남에서는 호남의 적자를 말하는 것이 오히려 심각한 네거티브라고 문재인 후보를 겨냥하기도 했다.

◇과거=과거의 이미지가 강하다는 지적에 박 후보는 ‘치열함’으로 응수했다. 그 누구보다 정치 현장에서 치열하게 투쟁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치열함을 기반으로 거대한 보수·기득권 세력에 맞서 두 번의 정권 창출을 이루는

데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지금 새정치연합에 필요한 것은 정권 창출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던지는 ‘치열함’이라고 했다. 지난 대선 패배는 2% 부족했던 치열함에서 기인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정권 창출의 경험과 치열함으로 당의 위기를 극복하고 수권정당의 길을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호남=정권 창출은 호남 민심의 명령이다. 호남 민심에 부끄럽지 않게 치열하게 살아 왔다고 감히 말씀드린다. 정권 창출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지겠다. 저의 정치 인생을 불태우겠다. 박지원에게 남은 것은 그것 뿐이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의 전국대의원대회가 약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권 경선 판세가 혼전 양상으로 치달고 있다.

때문에 애초 예상보다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갈릴 것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후보 측은 국민 여론조사에서의 우위를 앞세워 대세를 굳혔다고 분석하고 있다. 호남과 수도권 민심을 잘 다독인다면 격차를 더욱 벌여 최종적으로는 과반에 이르는 득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캠프의 자체 분석이다.

문 후보 측은 특히 당원들 사이에서도 ‘네거티브론’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번지고 있다고 판단,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목소리를 높이는 등 대선후보로서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박지원 후보 측은 초반의 ‘문재인 대세론’이 허물어졌다면 승기를 잡았다고 자신하고 있다. 지금도 박원 구도를 이룬데다 시간이 흐를

## 文 “대세확보” vs 박 “내가 우위” vs 李 “뒤집는다”

### 野 전대 열흘 앞 당권판세 혼전 양상

수목 박 후보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바닥의 당심은 박 후보 측으로 쏠려 있는데 여론조사에서 판세 분석을 하다 보면 친노(친노무현) 의원들을 중심으로 말을 듣게 돼 대세론이 만들어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박 후보는 이날 YTN라디오에서 “문재인 후보가 국민 여론조사에서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의원과 권리당원은 제가 앞서고 있다”며 “초반에 대세론에 무게를 두던 언론들도 이

제 ‘박지원이 우세한 것 아닌가’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 측은 당분간 총리 인사청문회 국면이 이어질 것에 맞춰 정부·여당과 대우할 정치력을 갖춘 후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울 계획이다.

이인영 후보는 ‘세대교체’를 앞세워 2위에 올라섰다고 평가, 막판 뒤집기를 노리고 있다.

장진영 대변인은 “이 후보는 문 후보의 대세론과 박 후보의 맹주론을 잠재웠다”며 “여론

조사에서도 고무적인 결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회로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 당을 ‘을지로 당’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는 등 민생·노동 이슈를 파고들 계획이다.

이처럼 후보들간 세 대결이 팽팽하게 진행되자 후보들은 앞으로 어떤 돌발변수가 나오느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후보들은 계파별 특정후보 지지 ‘오다’나 비노그룹의 움직임 등 내부 변수는 물론,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 등 외부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로 이번 조사는 초반부터 후보 간 경쟁보다는 정동영 전 의원의 탈당 및 신당추진, 연말정산 논란, 국무총리 인선 등 굵직한 외부 현안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새누리 원내대표 경선 양자대결 확정

### PK 이주영이나 TK 유승민이나

#### 홍문종·원유철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로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이 PK(부산·경남) 4선의 이주영 의원과 TK(대구·경북) 3선인 유승민 의원의 양자 대결로 확정됐다.

또 이 의원은 수도권 3선인 홍문종 의원을, 유 의원은 자신보다 선수가 하나 많은 수도권 4선의 원유철 의원을 각각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로 맞이해 경선을 나서게 됐다.

홍문종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과 우리가 만든 박근혜정부의 치어리더를 자임하고 이 자리에 섰다”면서 “쓴소리보다 되는 소리, 손가락질보다 서로 어루만지며, 청와대와 여의도가 이 모든 것을 공동 책임지고 하나가 돼야 돌파한다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원유철 의원은 곧바로 같은 장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편중을 탈피하고 명실상부한 전국정당이 돼 모든 국민의 마음을 담아 내년 총선 승리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승민 의원과 힘을 모으겠다”면서 “(당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 당·정·청 관계의 중심을 잡고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립 성향으로 분류되던 최근 ‘신박’(새로운 친박근혜)으로 불리기 시작한 이주영 의원은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친박 주류인 홍 의원은 경기 의정부부여이 지역구이다.

‘원조 친박’인 유승민 의원은 대구 동을에서 내리 3선을 했고, 비박(비박근혜)계인 원 의원은 경기 평택갑이 지역구이다. 일각에선 유 의원이 현 정부 들어 청와대와 신주류에 거리를 뒀던 반면에 이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내며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경선을 ‘친박(이주영-홍문종) 대 비박(유승민-원유철)’ 구도로 해석하는 의견도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박근혜 지지율 20%대로 추락

### 집권 이후 처음...63% “국정운영 잘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다. 박 대통령 집권 이후 처음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27일 기준 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29.7%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3일 발표한 1월 4주차 주간집계 지지율(34.1%)보다 4.4%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62.6%로 지난주 주간집계(부정 58.3%)보다 4.3%포인트 올랐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14일 40.6%를 기록한 이후 계속 하락했다. 지지율이 40%대에서 20%대로 떨어지는 데 보름도 걸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는 “대통령 지지율 30%대가 무너진 건 국민이 더는 대통령의 말과 행동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된 것을 보여준 것으로 레이더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조치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게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한편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35.4%, 29.6%로 나타났다. 1월 4주차 주간집계(새누리당 38.6%, 새정치연합 22.2%)와 비교하면 새누리당은 3.2%포인트 하락했고, 새정치연합은 7.4%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6~27일 이틀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 및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으로 유·무선 각각 50%씩 혼합해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참숯에 구워먹는 소고기전문점**

2인분을 주문하면 2인분을 더드리는

소갈비살, 소안창살, 살치살

소고기 비싸게 먹을 필요 없습니다! 1인 만원이면 실컷 드실 수 있습니다

소갈비살 기본가격	기본2인분 2+2 = 20,000원	국내산돼지갈비2+2(700g) 20,000
	기본3인분 3+3 = 30,000원	국내산갈매기살2+2(480g) 20,000
	기본4인분 4+4 = 40,000원	왕갈비탕(6,000원) 볼팩 (6,000원)

6.25에 단리는 단리도 아닙니다.

**초대박매출**

신규창업, 업종전환 시 성공을 보장합니다  
오픈점 일평균 2백만~4백만원 이상 대박!!

광주, 호남지역 체인점모집

262-0049/010-3803-2612

오치점(266-0045) · 두암점(251-8216)  
교대점(526-6617) · 일곡점(573-5204)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불경기!! 절대 싼 고기라서 싸게 파는 게 아닙니다.  
바리다매!! 손님은 싸게 드시고 업주는 적은마진이지만 많이 팔기 때문에 착한소장수는 불경기형 맛소장브랜드 손님을 꼭 만족적인 반응을 얻고있습니다.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제23기 학생모집**

◀ 보건복지부 위탁교육기관 ▶

**교육안내**

- 교육기간 : 2015년 2월 16일(월) ~ 12월 중순(약 10개월)
-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수업
- 교육시간 : 주간반 오전 9:00~1:20 / 야간반 오후 6:00~10:20

**제출서류**

1. 본 교육원 입소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4.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매  
\* 원서접수시 전형료 : 10,000원

**원서접수** ~ 2015년 2월 6일(금)

**문의할 곳** 062)605-1112, 1023

광신대학교  
**사모상담전문지도자과정 모집**

- :: 지원자격 : 목회자(목사, 강도사, 준목) 사모
- :: 수업형태 : 2년(4학기) / 15주 / 매주 목요일 11:00~15:50
- :: 교육일시 : 2015년 3월 5일 개강
- :: 제출서류 : 입학원서(사진 3x4cm 2매) 1부
- :: 해택 : 한 교회에서 두 번 이상 등록하면 수강료 20% 할인

광신대학교  
**여자신학원 (여전도사과정) 모집**

- :: 지원자격 : 세례교인인 자(학력제한 없음)
- :: 수업형태 : 2년(4학기) / 주 3일 / 야간제
- :: 교육일시 : 2015년 3월 2일 개강 / 매주 월·화·목요일 19:00 ~ 21:55
- :: 제출서류 : 입학원서(사진 3cmx4cm 2매) 및 담임교회추천서 1부
- :: 해택 : 매학기 신청자에 한하여 교회봉사장학금 지급

문의할 곳 062)605-1063, 1112

광신대학교  
**목회자심리상담사과정 모집**

- :: 지원자격 : 목회자(목사, 강도사, 준목)
- :: 수업형태 : 2년(4학기) / 15주 / 매주 목요일 11:00~15:50
- :: 교육일시 : 2015년 3월 5일 개강
- :: 제출서류 : 입학원서(사진 3x4cm 2매) 1부
- :: 해택 : 한 교회에서 두 번 이상 등록하면 수강료 20% 할인